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 날씨 : 맑고 바람이 븐

제목 : 할머니 집에서 우리 집으로~!

오전

우리는 10시30분쯤에 할머니집(충북 진천)에서 출발하였다. 할머니가 소금, 고추장, 된장, 매실, 고기반찬, 야채반찬 등을 챙겨주셨다.

나는 조수석에 앉고, 내 동생들은 뒷자리에 앉았다. 주유소에 들러서 가득 기름을 채우고 세차를 했다. 먼지에 묻혀있던 차가 깨끗하게 세차되어서 참 기분이 좋았다. ^^ 우리가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차가 갑박이도 키기 어렵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다.

우리는 가면서 빵을 먹으며 노래를 들으면서 덤볐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갔다. ~~~~~ 흥

2시간에 걸려